

#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

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(요 15:16).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.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야 할까요?

### 1. 구하라 주실 것이요

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자녀가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.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?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.

**첫째로,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.** 시편 105:4을 보면 “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.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”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.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며(막 9:23),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영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곧 믿음 주시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.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, 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하며 그 음성듣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.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성경 66권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가는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.

**둘째로,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.** 예수님께서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(마 6:33).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영혼 구원, 곧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.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결하기를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.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강한 축복이 임합니다(요삼 1:2).

**셋째로, 일꾼 되기 위해 또는 일꾼으로서**

“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 
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 
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”  
(마태복음 7:7)



당회장 이재록 목사

**사명 감당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.**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뒤에는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. 또한 일꾼 된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간구해야 하지요.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더 큰 사명이 주어지고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(계 2:10).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운 것이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.

**넷째로,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.**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의식주, 일터, 사업터, 가족의 건강 등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. 이때 유의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.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.

### 2. 찾으라 찾을 것이요

예수님께서 “찾으라”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.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

의 형상을 따라 생령으로 창조되었습니다(창 1:27, 2:7). 영과 혼과 육을 지닌 아담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주인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(창 2:16-17). 이로써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혼과 육을 지닌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(전 3:18)

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사람의 본분을 행해야(전 12:13)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.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죽은 영을 살리고 진리와 의 가운데로 인도합니다.

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우쳐 마음에 양식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요,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과정입니다.

### 3.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

예수님께서서는 “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”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과연 우리가 두드리야 할 문은 무엇이며 어떻게 두드리야 할까요?

요한계시록 3:20에 “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”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.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 계명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입니다.

요한삼서 1:4에 “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” 말씀하셨습니다. 따라서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되 마음에 양식 삼은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야 합니다.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풍성하게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.

## 단신

### 일본 제2회 MIS 세미나 열려



일본 제2회 MIS(만민국제신학교) 세미나가 지난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총장 정구영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. 첫날 정 목사는 ‘성결이란 가능한가? 죄를 지으면 왜 사단이 송사하는지에 대해 믿음의 단계와 영혼육의 말씀을 토대로 풍부한 예화를 들어 강의했다. 둘째 날은 다윗의 생애와 주위 인물들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해부하여 성결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.

이 세미나에는 나고야, 마쓰모토, 오까야마, 동경 등 자협력교회에서 주의 종과 일꾼들이 참석했으며, 인터넷으로 생방송됐다.

### 이재록 목사 1분 신앙 칼럼 『등불』 발간



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1분 신앙 칼럼 모음 『등불』이 4월 30일 발간됐다. 이 책은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, 한국일보 등 국내 여러 일간지에 게재해 온 신앙 칼럼 모음이다. 하나님의 사랑,

창조의 신비로움,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,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삶, 하늘의 지혜를 받는 길 등 7부로 나누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엮었다. 우리가 응답과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과 길잡이가 될 것이다.

## 포토뉴스



인도 첸나이만민교회(담임 한정희 목사)는 지난 4월 23일 세례식을 가졌다. 이날 세례받은 7명의 성도 가운데 뿌시빠(Pushpa, 여, 41세) 성도는 “평소 시력이 안 좋아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아야만 했다. 그런데 세례받는 중 하얀 빛을 본 후 안경 없이도 성경이 잘 보인다”고 간증했다.

만민뉴스  
등록 다-1840(1989. 7.12)

발행인 이재록  
편집인 빈금선

e-mail news@manminnews.com  
홈페이지 http://news.manmin.org

만민중앙성결교회  
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-3번지  
대표전화 02) 818-7000

### 교회 오시는 길



-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**
  -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(교회앞 하차)
  -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
  - 2,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
- 7호선 남구로역에서**
  -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
- 시내버스**
  - 5536, 5615 (교회앞 하차)
  - 503, 504, 571, 652, 5618, 5619, 5626, 5630, 5712, 5714번 (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)
- 교회버스**
  -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
  - 문의: 차량팀 (02)818-7391-3

###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

주일 대예배	1부 10:00 AM 2부 11:30 AM
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	9:00 PM
주일 빛과소금요식집선교회 예배	11:00 PM
주일 저녁예배	3:00 PM
금요일예배	11:00 PM
수요일예배	7:00 PM
화요일예배 [대학·가난·청년·배울·미리애]	8:00 PM
빛과소금 수요일예배	9:00 PM
토요일예배 [중·고등부]	4:00 PM
토요일예배 [아동부]	3:00 PM
다니엘철야기도회	9:00 PM (매일, 단, 공휴일은 제외)
새벽예배	5:00 AM (매일, 단, 토요일은 제외)

###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

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.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.

우 송 료 : 1년분 10,000원 (신문대금은 무료)  
구독신청 : 02) 851-3845  
070-8240-5609 (예금주 위성영)

국민은행 362-21-0201-106  
우리은행 072-255732-02-201  
농협 100072-52-061722  
우체국 012419-02-047269